

‘과학신동’ 이 컨테이너에 등지를 튼 까닭?

언론의 요란한 보도로 화려하게 등장한 ‘과학신동’ 송유근이 대학을 포기해 버렸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글 | 이승준 _ KBS 보도본부 시사보도팀 취재파일4321 기자 sailing@kbs.co.kr

“네? 유근이가 대학을 그만둔다구요?” 지난해 9세의 나이로 국내 최연소 대학생이 된 이른바 ‘천재소년’ 송유근 군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던 도중에 유근이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대학을 그만두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국내의 대표적인 영재소년으로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근이가, 그것도 대학생활 단 2년 만

에 그만 둔다니 이유가 궁금했다.

수업 듣기 싫어 “다리 부러졌다” 거짓말도

일주일 뒤, 유근이 아버지와 의 약속대로 아침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유근이가 다니고 있는 인하대를 찾았다. 유근이가 머무르고



"나도 이젠 대학생" - 천재소년 송유근 군이 인하대 입학식에 참석, 동기생들과 나란히 앉아 있다 (2006년 3월 2일, 사진제공=연합뉴스).

있는 곳은 인하대 게스트하우스로, 유근이의 방은 인하대 측에서 특별히 제공한 10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차분한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벽지 색깔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장소였다. 첫 학기에는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생활해왔지만 유근이가 대학생활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면서, 지난 학기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수업이 있는 날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고 했다. 수업이 몰려 있는 목요일이면 가장 바쁜 사람은 어머니 박옥선 씨다. 유근이가 대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책가방을 싸주는 등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없으면 단 하루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이다.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고 대학 캠퍼스를 거니는 10세 소년의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다.

목요일 하루에 들어야 하는 강의는 4과목으로 10세 소년에게는



인하대 2학기 수시모집에 국내 최연소 대학생으로 합격한 8세의 천재소년 송유근 군. 2005년 10월 24일 인하대 홍승용 총장으로부터 합격증을 받은 뒤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직접 작동시켜 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벽찰 만도 했다. 등교하는 유근이에게 살짝 물어보았다. “대학교 수업 재밌어?” “공부하는 건 재밌는데요, 수업은 재미 없어요” 유근이로부터 돌아온 대답이었다. 대학생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누리기 어려웠다는 게 유근이 어머니의 설명이었다. 사실 유근이는 10세 소년일 뿐이다. 등교길 교내 매점에서 과자를 사달라고 한참을 조르다가 결국 초콜릿 한 상자를 얻어 건지고는 마냥 기뻐했다.

초콜릿 한 상자를 손에 들고 유근이가 처음 찾은 수업은 물리 수업이었다. 물리 수업은 교수와의 1대 1수업으로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된다. 갑자기 들이닥친 취재진에 물리 교수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학교 측에서 유근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유근이의 대학 생활이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점을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었다.

유근이를 교실에 들여보낸 뒤 어머니 박옥선 씨는 유근이가 지금도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적응한 편이라고 말했다. 한 학기를 다닌 뒤에 유근이가 대학 생활에 흥미를 잃으면서 한번은 멀쩡히 등교한 유근이가 강의실 건물 앞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수업에 못 들어가겠다고 전화한 적도 있다고 했다. 학교 수업을 듣기 싫은 10세 소년이 내놓은 어쭙잖은 등교 거부의 핑계였던 셈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유근이의 부모님은 유근이가 또래들과 어울려 평범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었다. 나 하고 순간 고민하기도 했다는 게 유근이 어머니 박옥선 씨의 말이었다.

120학점 이수 졸업요건, ‘과학신동’ 에겐 애당초 무리

사실 유근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길의 개척이었다. 초등학교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 검정고시를 보려고 했던 때, 12세 이전에는 검정고시를 볼 수 없다는 교육부 방침에 부딪혀 좌절하고 말았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벌여 간신히 고입 검정고시까지 합격했고, 유근이의 등장으로 ‘과학신동’에 대한 교육부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기도 했다(사실 유근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 지원자는 지금까지 유근이 말고는 단 한명의 지원자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의 영재교육의 기본을 만들어온 유근이였기에, 유근이의 부모님에게 대학 입학은 힘든 여정의 종착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유근이와 유근이의 부모님에게 대학은 새로운 여정의 시

작이었던 셈이었다. 언론의 조망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대학에 입학했지만, 자신의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진도위주의 대학 수업에 유근이는 싫증을 느꼈다. 게다가 수학과 물리 등 재능을 보이고 있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초등학생과 다를 바 없는 유근이가 대학의 역사나 국어 같은 교양과목을 따라가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여느 대학생들처럼 전공과 교육과목까지 모두 120학점을 넘게 이수해야 하는 졸업요건은 유근이가 충족시키기는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근이 부모는 학교 측에 학점 이수와 관련해 예외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대는 것은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유근이는 대학과정을 빨리 마치려고 독학사 공부까지 했다고 한다.

물론 대학 측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하대측은 '송유근 프로젝트' 까지 준비할 정도로 유근이의 교육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유근이의 교육을 담당할 교수만 6명, 도서관에서는 거의 무제한의 책을 구해준다. 다만 어린 영재에게 대학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는 우리 대학의 아마추어리즘이 문제인 셈이다. 영재는 본래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지만 다른 분야에는 보통의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영재 교육의 기본 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대학제도 속에서 유근이가 성공하기는 힘든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유근이는 대학에서 강의를 최소화하는 대신 집에서 자신만의 연구에 심취해 있었다. 집에서는 MIT 공대의 공개강좌를 듣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멀리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재 원장을 찾아 묻고 가르침을 받는 '자습'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MIT의 공개강의는 교수가 직접 가발을 쓰고 정전기 실험을 하는 등 자유롭고 참신한 분위기가 유근이의 흥미를 끄는 것 같았다. 얼마나 여러 번 강의를 들었는지, 아예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외워버릴 정도였다.

유근이의 방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원서들이다. 한쪽 벽이 다 두툼한 원서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방으로는 모자라 마루까지 모두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책들 대부분에 포스트잇으로 표시가 돼 있다는 사실. 유근이는 자신이 연구하면서 찾아본 구절들을 일일이 적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유근이는 자신이 최근 '쿨롱의 법칙'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많은 참고서들을 다 뒤져봤지만 쿨롱의 법칙의 공식과 기본적인 개념들만 나열돼 있을 뿐, 개념과 공식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고리들이 빠져 있다는 게 유근이의 말이었다.

워낙 낮가림이 심한 성격인데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는 오히려 또래보다 더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말이 없었지만 일단 자신의 관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근이는 누구보다도 수다스러웠다. 특히 자신이 두 달 넘게 방에 틀어박혀 알아냈다는 쿨롱의 법칙의 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에서는 신명이 묻어나왔다. 화이트보드에 자신이 공식을 도출한 과정을 적어 내려가는 데는 일말의 망설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결국 '유근이의 법칙'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까지 붙인 공식도 만들었다.

'전국대 물리학과'에 3평 남짓 연구실·공부방 마련

지금까지 유근이에 대한 소식은 대개가 희망적인 것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과학자로 거듭날 수 있는 영재가 있다는 것, 그 영재가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면서 차곡차곡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유근이는 겉으로만 보기에 대학 적응에 '실패'했다. 유근이의 아버지 송수진 씨는 우리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대학의 아이비리그에 간다든지, 아니면 올림피아드에 입상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한 교육은 있어요. 영재고를 가기 위한 교육은 있는데, 진짜 영재를 기르는 교육은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볼 때는 거의 백지 상태가 아닌가요."

이번 학기를 끝으로 대학을 떠나기로 한 유근이의 선택은 바로 '전국대 물리학과'다. '전국대 물리학과'란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위치한 3평 남짓한 작은 컨테이너에 붙인 이름이다. 대한민국 대표 영재 유근이는 대학을 떠나,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는 이 작은 컨테이너에 실험을 할 수 있는 작은 연구실과 공부방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그 공간을 '전국대'라고 이름붙인 것은 특정한 대학 또는 교육과정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풀어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을 스승으로 가르침을 받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공간은 유근이가 영재교육의 현실에서 부딪친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현실화된 것은 없다. 텅 빈 공간만 있을 뿐, 연구를 위한 기자재도 유근이를 가르쳐 줄 스승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대학의 서열과 전공의 스펀 현상, 그리고 과학고조차 입시학원이 된 현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공간이기도 하다. 기자가 부모님과 유근이의 앞길에 대해서 대화하는 동안에도 유근이는 컨테이너에 신고 갈 실험장비와 원서들을 챙기기에 분주했다. **ST**